

카프만 인덱스(Kauffman Index)를 통해 본 2015 미국의 창업활동

글 : 김선우 (kimsw@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업가정신연구단 단장

박기윤 (parkky88@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업가정신연구단 연구원

카프만 인덱스(The Kauffman Index: Startup Activity)는 1997년 이후 미국의 창업활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카프만 인덱스는 1997년 이후 미국 전체 및 40개 대도시 수준에서 다양한 창업 활동의 트렌드를 제시한다. 창업활동지표(Startup Activity Index)는 창업자 비율(Rate of New Entrepreneurs), 창업자의 기회 비율(Opportunity Share of New Entrepreneurs), 창업밀도(Startup Density)를 조합하여 제시된다. 2010년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던 창업활동지표는 2015년 다시 반전되어 미국 기업가정신의 부활을 기대하게 한다.

미국 내 창업자 비율은 전년 대비하여 10% 정도 증가하였다. 2014년에는 성인남성 10만 명당 창업자 수가 280명이었는데, 2015년은 31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창업률은 인구에 비례해 볼 때 매달 50만명 이상의 창업자가 나온다는 의미이다. 창업

자의 기회 비율은 장기간 경제 침체 속에서 하락되었다가 2013년 이후 회복되고 있는 단계로 해석된다. 2015년의 경우 10명의 창업자 중 8명이 창업 이전에 실직한 경험이 없다고 나타났다. 창업밀도는 2013년까지 하락되다 최근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2014년 10만 명당 128.8개의 창업기업 수는 2015년 130.6개로 증가하였다(표 1 참조).

● 창업자의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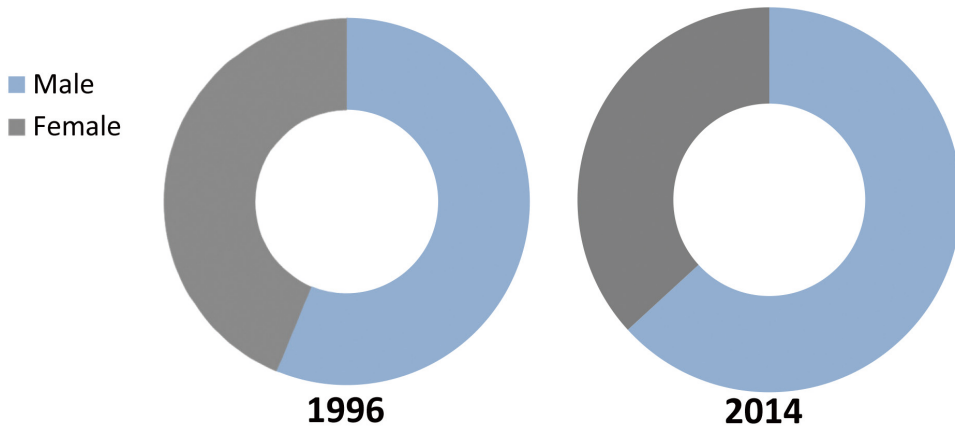
2015년 자료에서도 대부분의 창업자는 남성으로 나타났다. 창업가의 63.2%가 남성 기업가로 여성 창업자의 비중은 1997년 43.7%부터 현재 36.8%까지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그림 1 참조).

표 1 : Kauffman Index: Startup Activity (1997-2015)

년도	창업활동지표	창업자 비율		창업자의 기회 비율		창업 밀도	
		비율	N	점유율	N	밀도	인구수 (1000명)
1997	0.77	0.32%	529,228	81.11%	1,692	189.0	263,126
1998	0.08	0.28%	531,337	79.54%	1,570	192.7	266,278
1999	0.31	0.29%	532,543	80.84%	1,631	191.2	269,394
2000	0.34	0.27%	532,231	83.92%	1,467	190.7	272,647
2001	0.58	0.27%	532,382	86.43%	1,537	186.7	275,854
2002	0.04	0.27%	561,573	82.99%	1,507	178.0	279,040
2003	-0.55	0.28%	624,303	76.84%	1,747	170.8	282,162
2004	-0.23	0.30%	614,589	77.09%	1,854	165.3	284,969
2005	0.14	0.30%	603,171	79.27%	1,833	175.0	287,625
2006	-0.16	0.28%	598,177	79.07%	1,767	174.7	290,108
2007	0.31	0.30%	592,917	80.79%	1,790	179.8	292,805
2008	0.37	0.30%	585,487	80.16%	1,738	185.8	295,517
2009	0.76	0.32%	585,677	80.74%	1,786	188.3	298,380
2010	0.13	0.34%	591,699	73.84%	1,937	175.6	301,231
2011	-0.04	0.34%	593,271	74.16%	1,920	161.4	304,094
2012	-0.72	0.32%	586,146	74.10%	1,825	133.4	306,772
2013	-0.70	0.30%	580,953	78.39%	1,780	125.5	309,326
2014	-1.06	0.28%	572,600	78.20%	1,609	128.8	311,583
2015	-0.37	0.31%	569,101	79.57%	1,734	130.6	313,874

자료: Kauffman Index Startup Activity National Trends 2015

그림 1: 창업자의 성별 비중



구분	1996	2014
남성(Male)	56.3%	63.2%
여성(Female)	43.7%	36.8%

자료: Author's calculations using the CPS, Kauffman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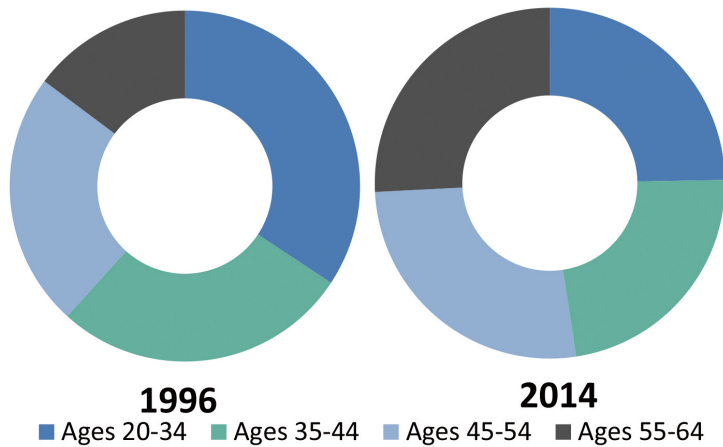
● 창업자의 나이

창업자의 비율은 각 세대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청년층의 창업은 줄고 고령층의 창업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34세 창업자 비율은 1996년 34.3%에서 2014년 24.7%로 감소한 반면, 55~64세의 창업자 비율은 1997년 14.8%에서 2014년 25.8%로 증가하였다(그림 2 참조).

지역적으로 볼 때 창업 활동이 지속적으로 활발한

대도시는 오스틴(Austin)과 산호세(San Jose)이다. 2015년 발표된 40개 지역 중 창업활동(Metropolitan Area and City Trends in Startup Activity) 1위 도시는 오스틴(Austin, Tex)이며, 2위 마이애미(Miami, Fla), 3위 산호세(San Jose, Calif), 4위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Cali), 5위 덴버(Denver, Colo), 6위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Calif), 7위 뉴욕(New York, N.Y.), 8위 휴스턴(Houston, Tex), 9위 샌디에고(San Diego,

그림 2 : 창업자의 나이 비중



연령대	1996	2014
20-34세	34,3%	24,7%
35-44세	27,4%	22,9%
45-54세	23,5%	26,6%
55-64세	14,8%	25,8%

자료: SOURCE: Author's calculations using the CPS, Kauffman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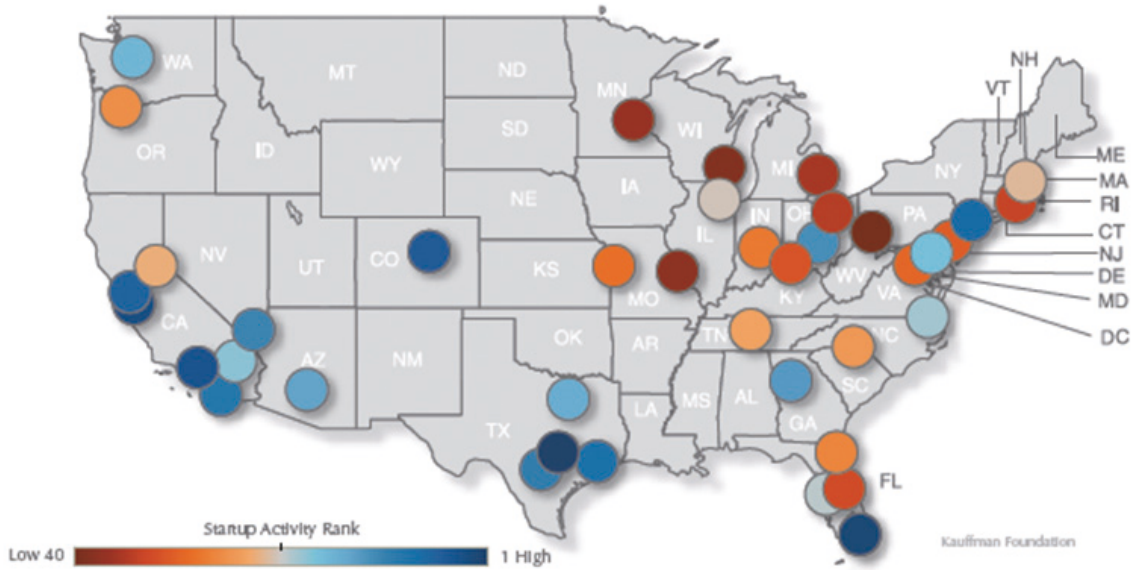
Calif), 10위 산 안토니오(San Antonio, Tex)이다. 이 결과는 2014년 상위 10위권과 랭킹에 차이가 약간 있으나 모든 지역이 유지되고 있다(그림 3 참조). 창업자 비율은 도시권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밀워키(Milwaukee)는 성인남성 10만 명당 130명이 창업하는 반면, 오스틴은 550명이 창업한다(그림 4 참조).

창업자의 기회 비율도 도시권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나쉬빌(Nashville)이 60.0%인데 반하여 실리콘

밸리의 중심지인 산호세(San Jose)는 91.2%로 다양하다(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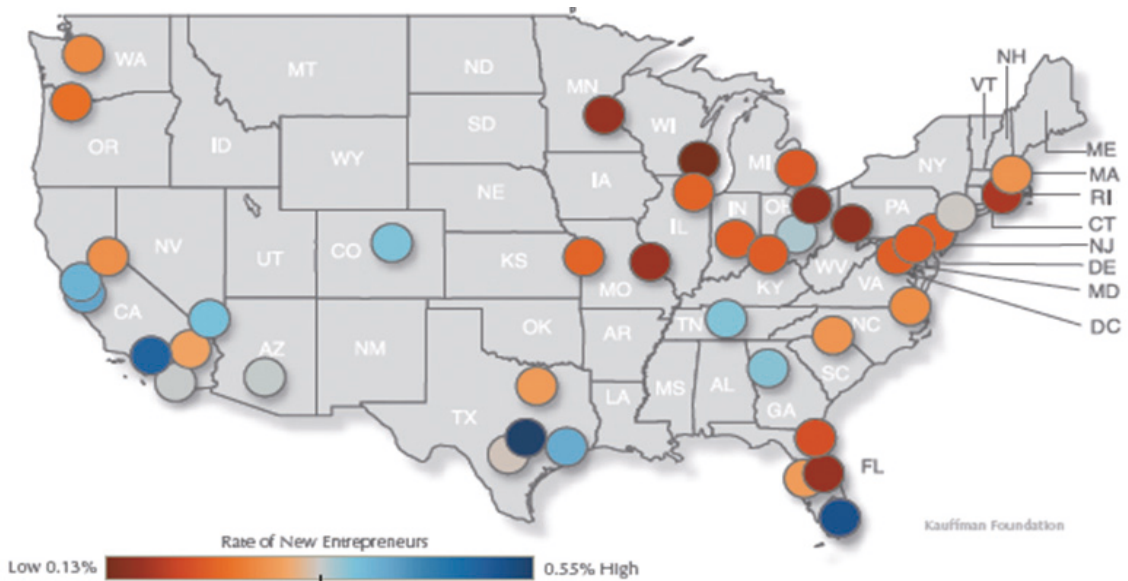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창업밀도는 인구 10만 명당 창업기업의 수를 나타낸다. 2015년 자료를 보면 신시내티 93.9부터 마이애미 247.6까지 창업활동을 나타내는 3개 지표 중 가장 큰 다양성을 보인다. 2015년 모니터링한 40개 대도시권 지역 중 24개 지역의 창업밀도가 전체 평균 창업밀도(130.6) 보다 높게 나타난다(그림 6 참조).

그림 3 : 2015년 미국 대도시권의 카프만 인덱스(창업활동)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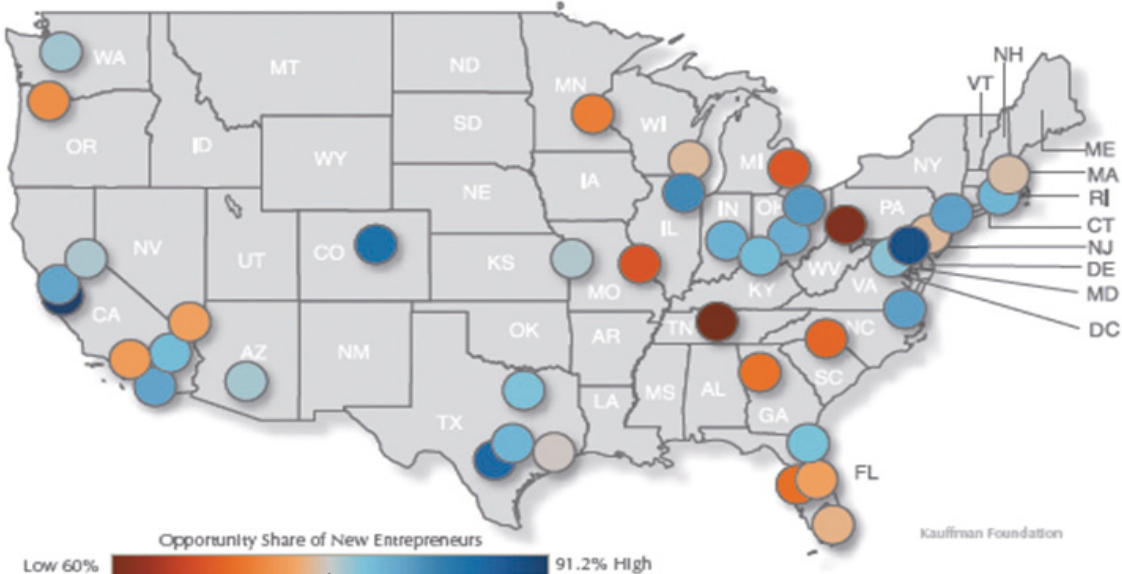
자료 : Kauffman Index Startup Activity Metro Trends 2015

그림 4 : 2015년 창업자 비율: 대도시권 창업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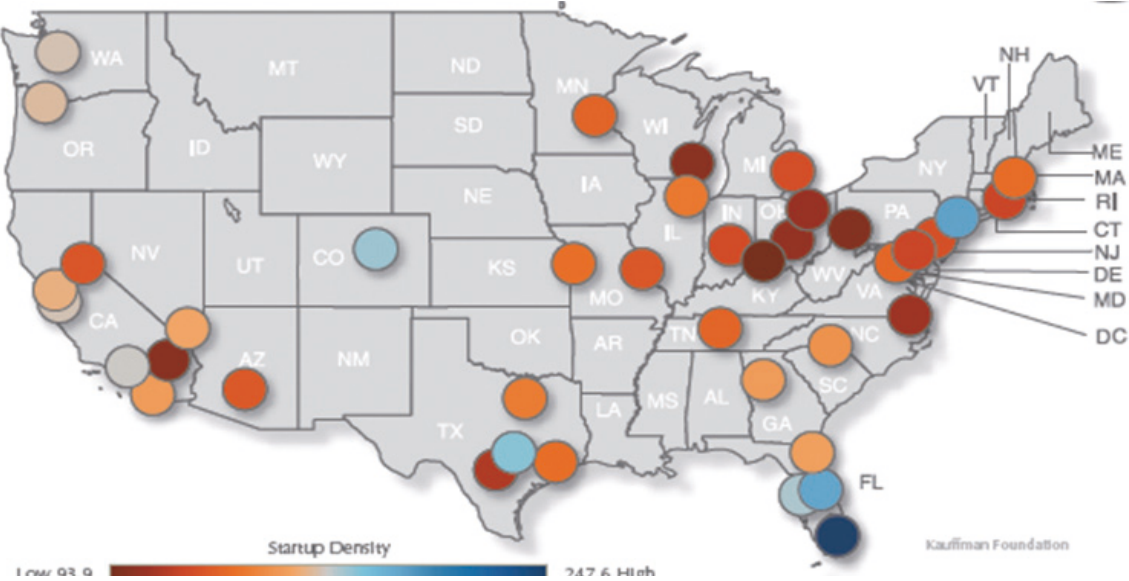
자료 : Kauffman Index Startup Activity Metro Trends 2015

그림 5 : 2015년 창업자의 기회 비율: 대도시권 창업 활동



자료 : Kauffman Index Startup Activity Metro Trends 2015

그림 6 : 2015년 창업 밀도: 대도시권 창업 활동



자료 : Kauffman Index Startup Activity Metro Trends 2015